

전북교육청, 농산물 꾸러미 지원

3만2000원 상당, 유·초·중·고·특수학교 21만8000명에 지급

도교육청은 전북도와 협업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관료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 및 로컬 가공업체를 돕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총 70억원(교육청 41억원, 도청 14억원 시·군 15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21만8천명의 학생들은 1인당 3만 2천원 상당의 친환경 쌀, 잡곡류, 채소, 과일류 및 로컬기공품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서 택배 배송으로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참여기관의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과 학교급식 예산을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힘을 아꼈다.

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은 전북도와 협업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관료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 및 로컬 가공업체를 돕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총 70억원(교육청 41억원, 도청 14억원 시·군 15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21만8천명의 학생들은 1인당 3만 2천원 상당의 친환경 쌀, 잡곡류, 채소, 과일류 및 로컬기공품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서 택배 배송으로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참여기관의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과 학교급식 예산을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힘을 아꼈다.

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으로 허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힘을 아꼈다.

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홍순직(28일 비전대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공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새만금개발공사 산학협약

기술개발·인력 협력 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8일 비전대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공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홍순직 총장, 박창열 취업지원처장, 박용근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 김금남 혁신경영본부장, 강병재 개발사업본부장, 고희성 전라사업본부장, 백치석 대외협력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새만금 개발 사업 및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 공동 기술개발 사업 추진 및 관련 전문 기술·인력 협력 등 유기적 산학협력 관계 구축 비전을 제시했다.

전주비전대는 ▲새만금 사업 관련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

관련 추진 ▲공사 직원의 평생교육원 수강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대학 실험실습장비 및 보유 특수 기술 등의 활용 지원을 약속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새만금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대학 재학생 대상 새만금 사업 소개 및 현장체험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팔문 사장은 "전주비전대학교 교내 곳곳에 걸린 취업플래카드와 화려한 철쭉꽃을 보면서 대학의 취업경쟁력과 동시에 학생에 대한 따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전기과, 신재생에너지과, 지적토목학과, 기계과 등 관련학과들과 함께 발전하길 기대하며, 다양한 협력사업 시행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선수권익보호 앞장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8일 전라북도 스포츠인권익센터 간담회 및 전문강사 위촉식을 열고 선수 권익 보호활동에 나섰다.

올해 초 진행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위촉식을 갖게 됐다. 이는 폭력행위와 성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해 명랑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익센터는 앞으로 선수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또한 인권 피해 신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맞춤형 인권 실태 조사도 벌이게 된다.

한편 스포츠인권익센터는 센터장과 전문상담사, 전문강사, 담당자 등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센터장은 유인탁 사무처장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8일 전라북도 스포츠인권익센터 간담회 및 전문강사 위촉식 기졌다. 권익센터는 앞으로 선수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인권 피해 신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전북교육청, 평균 경쟁률 13.4:1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40명 선발에 3,224명이 접수해 평균 13.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는 213명 선발에 2,408명(경쟁률 11.3:1)이 접수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816명(33.9%) 증가했고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특히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교육행정직은 일반 188명 선발에 2,532명(경쟁률 13.5:1),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9명 선발에 59명(경쟁률 5.9: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4명 선발에 45명(경쟁률 11.3:1)이 접수했고, 전산은 4명 선발에 34명(경쟁률 8.5:1), 사서는 8명 선발에 64명(경쟁률 8:1), 공업 일반직계는 2명 선발에 36명(경쟁률 18:1)이 접수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 공조

학교에 방역인력 1명씩 지원

전주교육지원청은 27일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각 학교에 1명씩의 방역인력 배치와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전주시로부터 관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학교 내 방역을 위한 인력지원 ▲학원과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특수교육 학생 학습꾸러미 지원 ▲고3 EBS 학습교재 구입비 지원 등 총 7가지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교육지원청의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학 후 관내 148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방역 인력 1명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빅데이터 인재 양성 나선다

과기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직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8,484명이고 그 중 빅데이터 직무에 필요한 인력은 3,264명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청년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산업 융복합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개설, 총 4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비 IT계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나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교육은 지역 문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본과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융복합형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의 강점인 문

화적 유산이나 지역 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 등 비 IT계열 전공자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문학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IT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 취업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민 교수(기록관리학과)가 총괄 책임을 맡고, 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 문헌정보, 통계학 등 전공을 넘나

/정은성 기자

드는 전북대 교수진과 산업계 전문 기업의 대표 등이 참여해 이론과 실무와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주)AUS와 (주)중은정보기술, 생활공학연구소, 마이캠퍼스(주), (주)비니텍, 엘리스(주) 등의 기업 등도 협약을 통해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우수한 교육의 질이 기대되고 있다.

양동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전라도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 거점대학교인 전북대의 의무이다"며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북대 여러 학과 소속 교수와 전문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준 높은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제공, 최고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